

불자 세상보기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개인 이자 공인이다. 집안에서는 가족의 일원이지만 집밖에 나가면 그 집의 대표가 된다. 직장에서는 그곳의 일원이지만 직장 밖을 나가면 그곳의 대표가 된다. 나라 안에서는 국민의 일원이지만 나라 밖에서는 국가의 대표가 된다. 이처럼 개인의 사적 영역과 공인의 공적 영역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의 실존적 삶 모두가 상호 의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붓다는 나의 존재성을 연(緣)이라는 타자를 통해 규정하는 원리인 연기법(緣起法)을 발견했다. 오늘의 나의 성취는 무수한 사람들의 도움과 협동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의 도움과 협동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서는 안된다. 그 사실을 가슴을 넘어 온몸으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살게 된다. 성인은 앎과 삶의

거리를 무화시킨 존재이다. 반면 성인은 아니지만 삶의 질적 제고를 생각하는 사람은 앎과 삶의 거리를 최소화하려는 사람이다.

정부는 나라를 통치하는 공공 기관이다. 이 공공기관의 일원인 공직자 즉 공무원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그는 집안에서의 개인이 아니라 한 정부의 공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섰다. 이러한 때에 국제청 감사원들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뒤이어 감사원 간부들도 성매매를 한 현행법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들은 지난 3월 19일 밤 감사원 공무원 2명이 1인당 비용이 100만원인 서울역삼동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였다. 그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성매매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시인이 그 사회의 '산소 역할'을 하듯이 공무원도 그런 산소 역할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청과 감사원 간부들의 대가성 접대와 향응의 차원에

서 이루어진 성매매는 우리 사회 공직자의 기강 해이와 공무원의 일탈 행위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들 공직자들의 잇따른 적발과 체포를 계기로 정신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곳에 참석한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대가성 접대 여부를 철저히 따져 일벌백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본디 국제청은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공직 기관이다. 이곳은 국민의 세금을 거둬 곳간에 두고 한 해의 살림살이를 가능하고 기뻐하는 곳이다. 이곳의 간부들은 엄정한 기준에 의해 국민의 세금을 거두는 세리가 되어야 한다. 또 감사원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사정하고 뿌리 뽑는 정부 기구이다. 이곳의 간부들은 사정기관 공무원으로서 청렴을 유지하고 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국제청과 감사원의 공무원들은 부정과 비리를 연이어 저질렀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사정기관은 권력기관이 아니다. 힘이 있는 권력기관일수록 청렴도가 낮다. 사정기관은 보다 많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관계자들의 접대와

로비로 인한 사정기관의 부정과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알다시피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권력기관 종사자들의 일탈행위가 심각하다는 공문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개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이 정치인들의 이해와 입맛에 맞춰 조변석개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리를 스스로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상호 의존의 원리로 이루어진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온몸으로 습득하면 상호 존중의 실천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러한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에서부터, 도로 상의 과도한 추월 문제의 활로 모색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삶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여 건강(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공무원의 '산소 역할'이 요청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 도덕성과 공무원의 산소 역할

社說

불교국제단체협의회에 거는 기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지구촌공생회 등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단체 9곳이 모여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를 3월 23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해외 협력사업,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불교계의 안정적 사업수행 및 역량강화, 공동 현안 과제에 전략적 대응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불교계 기관은 약 28곳에 달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장림이 이어지면서 단기간 협력 논의가 예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실무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협의체 구축 논의가 거건 1년 6개월 만에 협의회가 탄생하게 됐다. 2006년 첫 논의 이후 약 9년 만에 결과물이 도출된 것이다.

네트워크가 없다보니 그동안 사업 노하우나 성과를 공유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

다. 외교부와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정책과 자원배분 등에서도 불교계 참여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협의회는 올해 실무자 교육, NGO 봉사단 통합교육, 신규활동가 발굴·양성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해외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업참여 동기가 각 단체마다 다르고 재원 조달 능력에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의 유명무실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협력이 필요한 안건을 정기적으로 선정해 의사결정 경험을 쌓아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불교국제단체협의회가 불교 국제 구호 역량 강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교계 인원은 주목하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다. 협의회의 발전이 불교계 국제 구호 발전으로 이어질 기대를 보인다.

어린이 포교 콘텐츠 활용해야 한다

미래불교 성장 동력이 될 어린이청소년 포교활동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이 3월 26일 일선 현장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포교콘텐츠 활용법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시연회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부장 송득 스님을 비롯해 각 교구본사 포교국장 어린이청소년 법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그간 포교원의 어린이·청소년 포교 콘텐츠는 주목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잡나와 비전을 찾는 자기주도리더십'은 참신, 만다라그리기, 절 수행, 사경 등을 소개하면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다.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가져야 할 의무이다. 특히 '자비'를 표방하는 불교는 더욱 그러하다.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보살이다. 여기에는 세상의 구제와 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마음의 배반다는 의미가 함께 내포돼 있다. 관세음보살은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는 이제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는 개인을 섬울 수 있어야 한다. 고통에 귀 기울이고 지친 손을 잡아주는 것은 불교의 종교의 책무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듣고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세월호가 남긴 숙제는 바로 이것이다.

다. 어린이마음거울 108배부터 △성불도놀이 △육바라밀 △유아용 모바일 게임 '응답하라 아바라' 등을 소개했다. 5월경 출시 예정인 카카오톡 이모티콘 '반야의 아담법석'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교는 기본적으로 투자다. 10년의 시간 동안 씨앗을 뿌리고 키워야 겨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어린이 법회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크고 피드백도 느려서 일선 사찰에서 저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세대전승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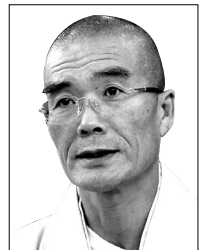
1980, 90년대와는 달리 다양한 어린이 포교 교보재들이 많이 개발됐다.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듯 이제는 일선에서의 활용이 필요하다. 포교원 역시 활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에 홍보를 기울여 해서는 안된다. 또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교 콘텐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발언대

세월호 1주기에 부처

오는 4월 16일은 지난해 온 국민들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사고로 평가 받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아픔은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불교계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세월호 추모주간 상시로 확대하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종교계에서 이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 조계종에서는 4월 14일 조계사에서 세월호 희생자 및 실종자 위령제에 이어 4월 16일에는 전 사찰에서 세월호 인양 추구를 위한 기도, 타종 등을 실시한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1년 동안 묵살에 있는 가족이 나오기를 기다린 가족들의 애끓는 심정을 위로할 수 없다. 수몰된 295명의 억울함 역시 풀어지지 못한다.

세월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조풍하는 이는 물론 인양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다며 인양포기를 종용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에 끝까지 공감할 수 있는 건 결국 종교

밖에 없다. 종교는 자비의 담요를, 이기적인 마음을 꾸짖을 수 있어야 한다. 어찌됐든 검소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종교다.

4월 16일 당일만 타종하고 기도하는 걸로 종교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된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건을 본보기 삼아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이끌어내야 한다. 봄이면 사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현수막 만이라도 걸어서 사람들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돕자. 매일 예불할 때도 세월호 인양을 추구하며 기도할 수 있길, 추모법회 역시 사찰 곳곳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들릴 수 있길 바래본다. 가톨릭에서는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미사가 집전되고 있다. 안산 단원고의 관할교구인 수원 원곡구에서도 매일 세월호 미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교에서도 이런 노력을 이어가야 하는 것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정한 추모가 될 것이다. 세월호 1주기를 기점으로 종교의 역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불교로 거듭나길 바란다.

‘아픔에 귀 기울이기, 종교의 책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조계종은 오는 4월 14일 조계사에서 1주기 추모 위령제를 열고 16일에는 전국 사찰에서 실종자 위령과 회생자 추모를 위한 타종식이 진행된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들이 담겨 있는 사고였다. 당시 참사가 발생했을 때 한국불교계는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팽목항에 법당을 열어 희생자의 호헌을 위로했고, 봉사단은 가족과 접수사 등을 살뜰하게 챙겼다. 최대 피해지역인 안산에서도 스님들은 불침주야 많은 노력을 했다. 아쉬운 점은 개개인 스님들의 노력이 종단과 불교계 전체의 결집된 모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1년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가 세월호를 바라보는 시선은 양분돼 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 “유가족이 되고 싶다”고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음에도 일부 세력은 이를 정치적 프레임에 가둬 놓고 판단하고 있다.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가져야 할 의무이다. 특히 '자비'를 표방하는 불교는 더욱 그러하다.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보살이다. 여기에는 세상의 구제와 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마음의 배반다는 의미가 함께 내포돼 있다. 관세음보살은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는 이제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는 개인을 섬울 수 있어야 한다. 고통에 귀 기울이고 지친 손을 잡아주는 것은 불교의 종교의 책무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듣고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세월호가 남긴 숙제는 바로 이것이다.

화제의 책 신이 내려주신 선물
손과 얼굴 보는 법
손과 얼굴은 운명을 결정한다. 가장 쉽고 정통으로 알고 싶지 않은가?

- ♣ 타고난 인상이란 그 사람의 자체이며 정보가 된다. 그래서 손과 얼굴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되므로 현대인들에게 관상술은 성공의 비즈니스라 하였다.
- ♣ 리더는 반듯이 관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알고, 상대방까지 알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먼저 좋아진다. 그래서 인상학이란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들여다 보는 거울이다.
- ♣ 이 책은 손과 얼굴을 좀더 많이 알게 한다. 당신의 미래는 확실하게 달라질 것을 확신하는 바다.
- ♣ “손과 얼굴 보는 법”은 인상학을 정통으로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 ♣ 손과 얼굴은 대박이다.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 송월스님 저음 / 시록판 / 양장본 / 312쪽 / 정가 17,000원

한국 사점 판매장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자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자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격국(格局)과 용신(用神)으로 운(運)보는 법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자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은 왜 자주풀이의 법수를 매타게 기다리는가? **자평명리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송월스님 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韓國人의 新 자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번뜩이는 지성, 만물을 꿰뚫는 통찰력, 특히 풍부하고 살아있는 경험 등은 결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도저히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新鮮함이 있다.
창신 김성진 저음·신국판·양장본·값 40,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적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 칼라 산업 지붕 공사